

2016학년도 수능대비

문학 EBS Final 2강 (고전시가)

국어강사 신한종 (국신T)

現 Orbi Class 인강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現 목동아레테언어논술학원

前 노랑진이투스 (마감강사)

前 외교, 자사고 특강

[저서] 절대(絶對)국어 시리즈

Orbi Class

[1강] Chapter1. 고전시가의 패턴

[고전시가의 패턴 파악]

■ 작가층으로 추론하는 고전시가의 주제 패턴

- 임금부터 양반, 부녀자, 기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층
 - 작가=양반 : 유교 충의 사상, 효 사상, 자연
(양반이 썼는데, 임이 나온다면?)
 - 작가=양반=아녀자 : 답답함, 친정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 (허난설헌, 신사임당)
 - 작가=기생 :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황진이(명월), 매창, 한우, 계랑, 홍랑 등)
 - 작가=평민 : 탐관오리 비판, 삶에 대한 답답함 해소, 임에 대한 그리움

■ 자연에 대한 주제 패턴은 꼭 암기하고 가재

자연 : 강호, 강산, 강천, 청산, 산수, 산천, 임천, 송간, 죽림, 청풍명월, 유수, 백구, 풍월 등

① 안빈낙도(安貧樂道) 계열

- 가난속에도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
(소박한 차림 - 도롱이, 삿갓, 죽장 망혜 / 소박한 음식 - 박주 산채, 보리밥 풋나물)
- 띠집, 초려삼간, 나물, 소부허유

② 유유자적(悠悠自適) 계열 → 자연속에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는 태도

③ 자연동화(自然同化) 계열

-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지

④ 무릉도원(武陵桃源) → 자연적 이상향

⑤ 탈속적 경지 →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거

⑥ 풍류적 태도 → 술, 음악 (거문고, 가야금)

■ 상류층 시가에 대한 주제 패턴

- . (은일가사) 관직을 떠나 자연에 묻혀 사는 선비의 생활을 다룬 가사
 - > 대표작 : 정극인 '상춘곡', 송순의 '면앙정가', 박인로 '누항사'
- . (내방가사) 규방가사, 규중가사라고도 하며 부녀자에 의해 지어져 전해지는 가사
 - > 대표작 : 허난설헌의 '규원가'
- . (기행가사) 여행 중에 얻은 견문과 소감을 적은 가사. 중간 중간 충성심, 나라걱정 등 표출
 - > 대표작 : 정철의 '관동별곡'
- . (유배가사) 기행 가사의 일종으로, 귀양살이를 여행의 동기로 삼아 새롭게 얻은 경험과 견문을 노래한 것. 억울함, 간신배 비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한 부분을 찾아야함.
 - > 대표작 : 조위의 '만분가', 안조환의 '만언사'

■ 기출하는 표현상의 특징 출제 패턴

- 영탄법 - 감탄형 어미
- 대구법
- 객관적 상관물
-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
- 이미지
-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 매난국죽 + 소나무

[Note]

[1강] Chapter2. “평민 패턴” 고전시가 정복

[평민 작가층의 고전시가 패턴 파악]

■ 주제 패턴

- 사랑과 이별
- 인생, 삶
- 풍자
- 효

■ 구조상 특징

- 사설시조의 구조상 특징 파악
- 고려가요의 구조상 특징 파악

[Note]

[EBS 수록 평민 작가층 고전시가 리뷰]

■ 사랑/이별의 주제 : 고려가요 서경별곡 (수능특강 191P)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마르는
닷곤 디 아즐가 닷곤 디 쇼성경 고외마른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느리시고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좇니노이다.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아즐가 긴히든 그츠리잇가 나는
즈믄 히를 아즐가 즘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잇든 아즐가 신잇든 그츠리잇가 나는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훈다 샤공아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널 빅에 아즐가 널 빅에 연즌다 샤공아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고즐여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고려가요의 형태
- 주체적 여성상
- 2연 - 구비소설의 적층성(정석가, 사공과 꽃)

■ 사설시조 모음 (수능특강 269P, 309P / 인터넷수능 97P) [읽어 읽기]

논밭 갈아 김 매고 베잠방이 대담 쳐 신 들메고

낮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버려 들러 메고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섞을 베거나 자르거나 지게에 짊어져 지팡이에 받쳐 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도 다
비우고 곰방대를 툭툭 털어 앞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흥얼대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꼬 하더라

서방님 병 들어 두고 쓸 것 업셔

종루 저지 달리 파라 비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샅다 아츠아츠 이저고
오화당을 니저발여고나
수박에 술 꼬자 노코 한숨계워 흐노라

님 그려 겨오 든 잠에 쏜자리도 두리승승

그리던 님 잠간(暫間) 만나 얼핏 보고 어드러로 간 거이고 잡을 거슬
잠 씌여 곁테 업스니 아조 간가 흐노라

어이 못 오던다 무슴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우희 무쇠로 성(城)을 뺏고 성(城) 안헤 담 뺏고 담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
헤란 두지 노코 두지 안헤 궤(櫃)를 노코 궤(櫃) 안헤 너를 결박(結縛)하여 노코 쌍(雙)
비목 외걸새에 용(龍) 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즈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흔들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훌리 업스랴 [6월 모평]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사설시조의 형태

■ 서민의 생활모습과 해학 등 정서 파악

■ 향가, 고려가요 처용가 (인터넷수능 66P)

<p>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 것이었고 둘은 누구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신라 처용가</p>	<p>동경 밝은 달 아래 밤새도록 노닐다가 들어와 내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로구나! 아!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뉘 것인가. 이럴 적에 처용아비만 본다면 열병신이야 헛감이로다. 천금을 주랴 처용아비야. / 칠보를 주랴 처용아비야. 천금 칠보도 말고 / 열병신 잡아 날 주소서. 산이나 들이나 천 리 밖으로 / 처용아비를 비켜 갈지어다. 아! 열병대신의 발원이로다. 어휘 풀이 *발원: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빚. 또는 그 소원. - 고려 처용가</p>
---	---

■ 화전가(평민 규방가사) : 덴동어미화전가 (인터넷수능 99P)

<p>■ 화전가의 패턴</p> <p>■ 덴동어미화전가 내용구성 이해하기 (별첨 : 전문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이방 아들 (그네에서 추락사) - 이승발의 후처 (집안의 몰락과 괴질로 죽음) - 황도령 [EBS 수록] - 옛장수 조침지 (화재 → 아들 화상과 조침지의 죽음)
--

■ [특이] 계세적 주제 : 용부가 (인터넷수능 125P)

<p>■ 평민가사, 계세적 / 풍자적</p> <p>■ 용부가 내용구성 이해하기 (별첨 : 전문읽기)</p> <p>[Part1] : 양반 규수 (저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정에 보낸 편지내용 + 평가 + 실제 시집살이 모습 <p>[Part2] : 평민 여성 (뺨덕 어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인 생활 모습 열거, 대구
--

■ 덴동어미화전가 (인터넷수능 99P)

여보시오 말씀 듣소 우리 사정을 논지컨대
삼십 넘은 노총각과 삼십 넘은 홀과부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가만히 숨숨 생각하니 먼저 얻은 두 낭군은
홍문(鴻門) 안의 사대부요 큰 부자의 세간살이
패가망신하였으니 흥진비래 그러한가
저 총각의 말 들으니 육대 독자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苦盡甘來) 할까 보다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이내 말이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 보세
영감은 사기 한 짐 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고
나는 사기 광우리 이고 가가호호에 도부* 한다
조석이면 밥을 빌어 한 그릇에 둘이 먹고
남촌북촌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도부하니
돈백이나 될 만하면 둘 중에 하나 병이 난다
병구려 약시세 하다 보면 남의 신세를 지고 나고
다시 다니며 근사 모아 또 돈백이 될 만하면
또 하나가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다 쓰고 나네
도부 장사 한 십 년 하니 장바구니에 틀이 없고
모가지가 자라목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
산 밑에 주막의 주인하고 굶은비 실실 오는 날에
건너 동네 도부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천둥소리 북아치며 소나기비가 쏟아진다
주막 뒷산이 무너지며 주막 터를 빼 가지고
동해수(東海水)로 달아나니 살아날 이 누굴런고
건너다가 바라보니 망망대해뿐이로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남해수(南海水)에 죽을 목숨 동해수에 죽는구나
그 주막에나 있었더라면 같이 따라가 죽을 것을
먼저 괴질에 죽었더라면 이런 일을 아니 볼걸
고대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 하고
도부가 다 무엇인고 도부 광우리 무어 박고
해암 없이 앉았으니 역장이 무너져 기막힌다
죽었으면 좋겠구만 생한 목숨이 못 죽을네라
아니 먹고 굶어 죽으려 하니 그 집덕네가 강권하니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할까
죽으면 쓸 데 있나 살기만은 못하리라
저승을 누가 가 봤는가 이승만은 못하리라
고생이라도 살고 보지 죽어지면 말이 없네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 용부가 (인터넷수능 125P)

[Part2]

흥보기가 싫다마는 저 부인(婦人)의 거동(舉動) 보소
시집간 지 석 달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 내네

(편지내용)

계엄할사 시아버니 암상할사 시어미라
고자질에 시누의와 엄숙하기 만동서여
요악(妖惡)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시앗년에
드세도다 남녀 노복(奴僕) 들며나며 흠구덕에
남편(男便)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에라.

(편지내용)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시집살이 못 하겠네 간숫병을 기우리며
치마 쓰고 내닫기와 보짚 싸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僧)들이나 따라갈가
긴 장죽(長竹)이 벗이 되고 들구경 하여 불가
문복(問卜)하기 소일(消日)이라
겉으로는 시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에
반분대(半粉黛)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라
시부모가 경계(警戒)하면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남편이 걱정하면 뒤받아 맞닥수요
들고 나니 초롱군에 팔짜나 고쳐 볼까
양반 자랑 모두 하며 색주가(色酒家)나 하여 불가

[Part2]

남문 밖 뺨덕어미 天生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 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저기 무릎맞침 싸흠질로 세월이며
남의 말 말전주와 들며는 음식(飲食) 공논
조상(祖上)은 부지(不知)하고 불공(佛供)하기 위업(爲業)할 제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衣服) 가지 다 내주고
남편 모양 볼작시면 삼살개 뒷다리요
자식 거동 볼작시면 털 벗은 솔개미라
옛장사야 떡장사야 아이 핑계 다 부르고
물레 앞에 선하품과 씨아 앞에 기지개라
이 집 저 집 이간질과 음담패설(淫談悖說) 일삼는다
모함(謀陷) 잡고 똥 먹이기
세간은 줄어 가고 걱정은 늘어 간다
치마는 절로 가고 허리통이 길어 간다.

- 작자 미상, 「용부가」 -

[1강] Chapter3. “양반(상류층) 패턴” 고전시가 정복

[양반(상류층)의 고전시가 패턴 파악]

■ 주제 패턴

- 자연에서의 삶 패턴
- 농촌, 어촌에서의 삶 패턴
- 유교적 주제 패턴 (효, 충, 선정)
- 유배 패턴
- 향가의 주제 패턴

■ 구조상 특징

- 향가의 구조상 특징 파악
- 시조의 구조상 특징 파악
- 가사의 구조상 특징 파악

[Note]

[향가 및 孝 주제 패턴]

■ 향가 안민가 (수능특강 203P) : 유교적 주제-선민

군은 어비여,
신은 득조살 어시여,
민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민이 득조 알고다.
구물스다히 살손 물생
이흘 머기 다스라
이 싸홀누리곡 어디 갈데 홀디
나라약 디니디 알고다.
아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흐놀둔
나라약 태평흐니있다.
(양주동 해독)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하신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이다.
구물거리며 사는 물생
이를 먹여 다스려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나라가 유지될 줄 알리이다.
아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가 태평하니이다.

- 총담사, '안민가'

[작품의 핵심 포인트]

- 향가의 형태상 특징
- 유일한 유교적 주제의 향가

■ 향가 찬기파랑가 (인터넷수능 64P) : 화랑 예찬

열치매
나토얀 드리
흰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새 파룬 나리여히
기랑(耆郎)의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시 직벽히
낭(郎)의 디니다샤온
므슴미 굿홀 좇누아져
아으 잣가지 노파
서리 몬누올 화판(花判)이여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좇아 떠감이 아니야?
새 파란 내[川]에
기랑의 모양이 있어라!
이로 냇가 조약에
낭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과져.
아으, 잣[柏] 가지 드높아
서리를 모르올 화랑장(花郎長)이여! - 양주동 역

- 총답사, '찬기파랑가'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기파랑을 상징하는 자연물 파악
- 예찬적 어조

[특오의 모죽지랑가 읽어 보기]

..... 불두덩 눈두덩 좋으시던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 가도다.....

■ 孝 주제의 고려가요, 평시조 엮어 보기 (인수 70P, 수능특강 309P)

호미도 놀히언마르논
날궤티 들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위 덩더동성
어머님궤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머님궤티 괴시리 업세라

호미도 날이지마는
낫같이 잘 들 리도 없습니다.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마는
위 덩더동성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이 없어라.
아, 임이여!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이 없어라.

- '사모곡'

들기동 방해나 디히 히애
게우즌 바비나 지서 히애
아바님 어머님씩 받좁고 히야해
남거시든 내 머고리 히야해 히야해

덜커덩 방아나 찢어 히애
거친 밥이나 지어 히애
아버님 어머님께 바치웁고 히야해
남거든 내 먹으리 히야해 히야해

- '상저가'

반중 조흥감이 고아도 보이믄다
유자 안이라도 품엄즉도 헛다마논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시 글노 설워헛믄이다

- 박인로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소재 및 시어의 의미 파악
- 효의 주제 형상화

■ 孝 주제의 연시조 : 이담명의 사노친곡십이장 (인터넷수능 95P)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풀었고 또 풀으니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 2티
어느 날 고향(故鄉)의 도라가 노모(老母)의 뵈오려뇨

<제1장>

친년(親年)은 @칠십오 | 오 영로(嶺路)는 수천 리오
도라갈 기약(期約)은 가디록 아득하다
아마도 잠 업슨 중야(中夜)의 눈물 계워 설웨라

<제2장>

적리(謫裏) 광음(光陰)은 사 년이 불셔 되고 천외(天外) 가향(家鄉)은 만 리에 아득하니
몸이 못 가거든 기별(奇別)이나 드르디야
아마리 척흠첨망(陟屹瞻望)을 말라 혼돌 어들쓴가

<제4장>

내 죄를 아옵거니 유찬(流竄)이 박벌(薄罰)이라
도처(到處) 성은(聖恩)을 어이 험야 갑스올고
노친(老親)도 플터 헤시고 하 그리 마오쇼셔

<제10장>

-이담명, '사노친곡 십이장'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실제 구체적 수치와 상징적 수치
- 대비 대조의 기법과 화자의 상황 파악

[유배 주제 패턴]

■ [특이] 유배 주제 : 고려가요 정서의 정과정 (인터뷰수능 70P) : 유배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숯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돌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루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헛마리신더
솔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험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내가 임을 그리워하며 울고 지내니
산(山)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사실이 아니며 모든 것이 거짓인 줄을 아으!
지는 달과 새벽별만이 아실 것입니다.
죽은 벗이라도 임과 함께 가고 싶구나. 아으!
내 죄를 우기던 이, 그 누구였습니까?
나는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말이었구나!
슬프구나. 아으!
임께서 저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 임이시여! 돌려 들으시고 아껴 주소서.

- 정서, '정과정'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객관적 상관물
- 임, 죄를 우기던 이의 의미 파악

■ 유배가사 : 안조원 만언사 (수능특강 217P) : 유배 [전문 수록]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 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옴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옥식진찬 어데 가고 맥반염장 대하오며
금의화복 어데 가고 현순백결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데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에 굽닐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우희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 내어
일분은 밥쌀 하고 일분은 술쌀 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윈 줄 아니
늪우쳐 하는 마음 없다가 하라마는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뎨에 들어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 안조원, '만언사'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유배가사의 주제상 특징 파악
- 화자의 정서 파악

■ 유배의 주제 작품 읽어보기 (인터넷수능 91P)

몸은 낯선 땅에서 못 가는 사람
내 집은 서울 장안 한강가건만
달 밝은 한밤에 꽃이슬 눈물지고
바람 맑은 연못에 버들은 실실이 새 빛일세
피꼬리는 고향길 더듬는 내 꿈을 깨워 일으키고
제비는 와서 경희루의 봄소식을 전해 주는구나
온종일 누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곳이건만
고향을 돌아보면 눈물이 손수건을 적시는 것을

- 소현세자, '몸은 낯선 땅에서'

내라 그리거니 네라 아니 그릴런가
천리만향(千里蠻鄉)에 얼마나 그리느냐
사창(紗窓)에 슬피 우는 저 접동새야 불어귀(不如歸)라 말거라 내 안 들 데 없어라

- 인조, '내라 그리거니'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 [보기] 문제 대비
- 객관적 상관물 파악

[사랑&이별 주제 패턴]

■ 이별의 주제 : 정철의 사미인곡 [인터넷수능 72P] [전문 수록, 읽어 읽기]

[주요 부분 해석하기]

...

황혼의 돌이 조차 버마티 빗최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꽃 디고 새넙 나니 녹음(綠陰)이 솔렸논디
나위(羅幃) 적막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잇다

.....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크니와 제도(制度)도 꺾줄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희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브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념(水晶簾)
거든마리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우희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深山) 궁곡(窮谷) 점낫꺾티 밍그쇼셔

.....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

앙금(鶯衾)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셤고
흐르도 열두 새흔돌도 셤흔 날

.....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히리
어와 내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흐노라

- 정철 '사미인곡'

■ 이별의 주제 : 한시, 평시조 (수능완성 73P, 수능특강 309P)

뜰 앞에 나뭇잎 하나 지자 庭前一葉落
침상 아래 온갖 벌레 우네. 床下百蟲悲
홀쩍 가시는 입 잡을 수 없는데 忽不可止
유유히 어디로 가시나요. 悠悠何所之
산 끝난 곳까지 따라가던 마음 片心山盡處
달 밝은 밤 홀로 꾸는 꿈. 孤夢月明時
남포의 봄 물결 푸를 때 南浦春波綠
임이어 훗날의 기약 어기지 마소. 君休負後期

- 정지상, 「임을 보내며 [送人]」 -

방 안에 헛는 촉불 놀과 이별호엿관디
눈물을 흘니면서 속 타는 줄 모로논고
우리도 저 촉불 곳도다 속 타는 줄 모로노라

- 이개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객관적 상관물 파악
- 화자의 정서 파악

[자연(농촌, 어촌 포함) 주제 패턴]

■ 자연(농촌, 어촌)의 주제 : 평시조 5편(수능특강 269P, 인수 89P, 수완 73P)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 체 장사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황희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치는 아이는 상기(주1) 아니 일어났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는고

- 남구만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라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돌 도다온다
아히야 박주산책망정 업다 말고 닉여라

- 한호, '짚방석 내지 마라'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귀에 모도 싣고
계산 닉은 길로 흥치며 돌아와서
아히야 금서(거문고, 책)를 다스려라 남은 희를 보니라

- 김천택, '전원에 남은 흥을'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척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촛즈 리 뉘 이시리
밤등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흐노라

- 신희 -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객관적 상관을 파악
- 자연의 패턴 연결

■ 자연(농촌, 어촌)의 주제 : 한시 (인터넷수능 89P)

추월산 가는 바람 금성산 넘어갈 제
들 넘어 정자 위에 잠 못 이뤄 깨었으니
일어나 앉아 맞은 기쁜 정이야 옛 임 본 듯하여라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 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 청풍 한 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돌려 두고 보리라

- 송순, '면양정잡가'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자연의 패턴 연결

■ 자연(농촌, 어촌)의 주제 : 박인로 누항사 (인터넷수능 77P)

[주요 부분 해석하기]

.....

쇼 흥 적 듀마 흥고 엄섬이 흥는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셔
구디 다든 문(門)밭기 어득히 혼자 서셔
큰 기춤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흥온 후(後)에
어와 그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니옴노라
초경(初更)도 거윈디기 엇지 와 겨신고
년년(年年)에 이러흥기 구차(苟且)흥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에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흥니나 갑시나 주엄즉도 흥다마는
다만 어젯밤의 거넌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 치(雉)를 옥지읍(玉脂泣)게 쉼어 니고
궂 니근 삼해주(三亥酒)를 취(醉)토록 권(勸)흥거든
이러흥 은혜(恩惠)를 어이 아니 갑흥넌고
내일(來日)로 주마 흥고 큰 언약(言約)흥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흥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흥면 혈마 어이할고
헌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풍채(風采)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썬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라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식비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흥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는다

.....

- 박인로 '누항사'

[작품의 핵심 포인트]

■ 화자와 소 주인의 대화 파악 / 이후 부분 : 자연의 패턴 파악

■ 자연(농촌, 어촌)의 주제 : 윤선도 어부사시사 [수완 유형편 27P]

[주요 부분 해석하기]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솅가
어촌(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갈 고기 뛰노느다 <춘사(春詞) 4>

년(蓮)넙히 밥 싸 두고 반찬(飯饌)으란 장만 마라
청약립(靑蕩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냐
무심흔 빅구(白鷗)*는 내 좃느가 제 좃느가 <하사(夏詞) 2>

슈국(水國)의 ㄱ올히 드니 고기마다 솔져 인다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크지 용여(容與)흐자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묘타 <추사(秋詞) 2>

몹ㄱ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식식히고
머흔 구름 흔(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ㄱ리온다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딘훤(塵喧)*을 막느도다 <동사(冬詞) 8>

- 윤선도, 「어부사시사」 -

배를 띄우는 과정을 형상화 (2번째 행 - 후렴구)

[계절별 1수] : 배 떠라 배 떠라

[계절별 2수] : 달 드러라 달 드러라

[계절별 4수] : 이어라 이어라

[계절별 8수] : 배 매여라 배 매여라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자연의 패턴 연결, 여음구 / 후렴구

■ 자연(농촌, 어촌)의 주제 : 이현보 어부단가 (수완 실전편 25P)

[주요 부분 해석하기]

이 등에 시름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 가는 주를 안가 <제1수>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매나 그렛논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애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바블 뵈고 녹류(綠柳)에 고기 썰어
노적화총(蘆荻花叢)*에 비 먹야 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늬 부니 아르실고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히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비(飛)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하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에 시름을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제4수>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자연의 패턴 연결

■ 자연(농촌, 어촌)의 주제 : 이이 고산구곡가 (수완 실전편 49P) [읽어 읽기]

[주요 부분 해석하기]

일곡(一曲)은 어디미오 관암(冠巖)에 히 비친다
평무(平蕪)에 닉*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노코 벗 오논 양 보노라 <제2수>

이곡(二曲)은 어디미오 화암(花岩)에 춘만(春晚)커다
벽파(碧波)에 곳을 씩워 야외(野外)로 보디노라
사람이 승지(勝地)을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제3수>

삼곡(三曲)은 어디미오 취병(翠屏)*에 님 퍼젓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 혼는 적의
반송(盤松)이 바롬을 바드니 녀름 경(景)이 업시라 <제4수>

오곡(五曲)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 정사(水邊精舍)*은 소쇄(瀟灑)흠*도 ㄱ이 업다
이 중(中)에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 음풍(詠月吟風)* 혼리라 <제6수>
- 이이, 「고산구곡가」 -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자연의 패턴 연결, 학문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
- 도산십이곡과 읽어 읽기

[우국충정, 지조, 절개 주제 패턴]

■ 우국충정, 지조/절개 주제 : 박인로 선상탄 (인터넷수능 77P) [전문 수록]

[주요 부분 해석하기]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니실식
을사(乙巳) 삼하(三夏)애 진동영(鎭東營) 느러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라
일장검(一長劍) 비기 촛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여기진목(勵氣瞋目)하야 대마도(對馬島)를 구어보니
브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잇고
아득흔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 빗칠쇠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하고
어리미친 회포(懷抱)애 헌원씨(軒轅氏)를 애드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비 아니면 풍파 만리(風波萬里) 밧기
어긔 사이(四夷) 엇볼넌고
무슴 일 하려 하야 비 못기를 비릇흔고
만세천추(萬歲千秋)애 7업손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之下)애 만민원(萬民怨) 길우누다

- 박인로, '선상탄'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이후 전개 파악하기

■ 우국충정, 지조/절개 주제 : 허전 고공가 (인터벳수능 80P) [전문 수록]

[주요 부분 해석하기]

집의 옷밥을 언고 들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괴별을 아는다 모로는다
 비오는날 일 업슬 지긔 쏘면서 니르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소리 흐려홀 지
 인심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터밧치 여드레 ㄱ리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야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죠커니와 고공(雇工)도 근검터라
 ...요스이 고공(雇工)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크나 자그나 동웃시 죠코 즘나
 ...엇그지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蕩盡)하니
 집 하나 불타붓고 먹을 섘시 전혀 업다 크나큰 세스를 엇지하여 니로려료
 김가이가(金哥李哥) 고공들아 식묵음 먹어슬라
 ...너희닉 득리고 새 소리 사자 하니
 엇그지 왓던 도적 아니 멀리 갖다 흥되
 너희닉 귀눈 업서 저런 줄 모르관되
 화살을 전혀 언고 옷밥만 닷토는다
 너희닉 다리고 톱눈가 주리눈가
 죽조반(粥早飯) 아춤저녁 더 하다 먹엿거든
 은혜란 칭각 아녀 제 일만 흐려 하니
 험 해논 새 들이리 어니제 어더 이셔
 집일을 맞춰고 시름을 니즈려뇨
 너희 일 익드라하면서 솟흔 소리 다 쏘괘라

허전 '고공가'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상징적 시어 파악하기

■ 우국충정, 지조/절개 주제 : 시조 4편 (인수 85P, 수완 73P)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을 한(恨)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호는 것가
아모리 프시엣 거신들 괴 뉘 싸희 낫더니

성삼문, 「수양산 바라보며」

주려 주그려 호고 수양산(首陽山)에 드럿거니
현마 고사리를 머그려 키야시라
물성(物性)이 구븐 줄 애다라 퍼 보려고 키미라

주의식, 「주려 주그려 호고」

암반(岩畔) 설중(雪中) 고죽(孤竹) 반갑고도 반가왜라
못노라 고죽(孤竹)아 고죽군(孤竹君)의 네 엇던닌다
수양산(首陽山) 만고(萬古) 청풍(淸風)에 이제(夷齊) 본 듯호여라

서견, 「암반 설중 고죽」

풍상(風霜)* 섯거 틈 날의 잇깃* 핀 황국화(黃菊花)를
은반(銀盤)*의 것거 다마 옥당(玉堂)*으로 보내실샤
도리(桃李)*야 곱이온 양 마라 님의 쓰들 알괘라

송순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숨어있는 상징적 표현에 대한 이해 필수적

[규방가사 패턴]

■ 규방가사 : 작자미상 봉선화가 [인터넷수능 75P]

[주요 부분 해석하기]

...봉선화 이 일흠을 뉘라서 지어낸고
...유약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 넘노난닷
자약히 불근 꽃은 자하군(신선의 옷)을 헤쳤난닷
백옥섬(고운 섬돌) 조흔 흠에 종종이 심어 내니
춘삼월(春三月) 지난 후에 향기 업다 웃지 마소....

<중략>

...(봉선화 물 들이는 과정)
춘면(春眠)을 느초 깨여 차례로 풀어 노코
옥경대(玉鏡臺)를 대하여서 팔자미(八字眉)를 그리라니
난대업난 불근 꽃이 가지에 부텃난닷
손으로 우희라니 분분이 훗터지고 / 입으로 불라 하니 석긴 안개 가리왓다
여반(女伴)알 서로 불러 랑랑이 자랑하고 / 꽃 압희 나아가서 두 빗흠 비교하니
쪽 낱희 푸른 물이 쪽의여서 푸르단 말 이 아니 오를손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엇더니
녹의 홍상(綠衣紅裳) 일 녀자(一女子)가 표연히 압희 와서
웃난닷 찡기난닷 사례(謝禮)난닷 하직(下直)난닷
....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다
수호(繡戶)를 급히 열고 꽃수풀을 정검하니 / 따 우희 불근 꽃이 가득히 수노했다
암암이 슬허하고 낫낫티 주어 담아 꽃다려 말 부치대
그대난 한티 마소 시세(時歲) 년년(年年)의 꽃빗춘 의구(依舊)하니
허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므럿지
동원(東園)의 도리화(桃李花)난 편시춘(片時春)을 자랑마소
.... 봉선화 이 일흠을 뉘라서 지어낸고 일로 하여 지어서라

- 봉선화가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이름의 유래 - 물들이는 과정 - 자랑 - 하직인사

[별첨] 더보기 - EBS 수록작품 전문 읽기

- **[인강 수강생용 교재에 수록]**